한국폴리텍대학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월) 12:00 (2026. 11. 3.(화) 조간)

“기술 배우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 직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 만 15세 이상 ‘전문기술’, 39세 이하 ‘하이테크’, 40세 이상 ‘중장년특화’
-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에 훈련수당까지…전문기술·하이테크 취업률 74.4%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2027학년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국 39개 캠퍼스 201개 학과에서 총 **5,590명을 선발**하며, 모든 과정의 교육비 무료이고,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과정은 학교를 갓 떠난 10대부터 신산업 분야로 도약하려는 청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까지 **생애 단계에 맞춰 교육과정을 고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전문기술과정' - 만 15세 이상, 지역 산업 맞춤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전문기술과정은 만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학력·경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2,390명을 모집**하며, **10개월 동안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을 익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낸다.

(관련사례) 서울에서 7년간 웹디자이너로 일한 김송경(32·여) 씨는 결혼 후 충주로 이주하면서 경력이 끊겼다. 남편과 동일한 자동차 배터리 기업 취업을 목표로 올해 충주캠퍼스 전문기술과정(자동차과)에 입학한 김 씨는 "자격증을 두 개 이상 따서 충주에서 새 경력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 **'하이테크과정' - 만 39세 이하, 신산업 고숙련 인재**가 되고 싶다면

하이테크과정은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와 경력 보유자 가운데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고숙련 과정**이다. **2,100명을 모집**하며, **10개월 동안 반도체·**

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고수준의 직업능력을 집중적으로 기른다. 전공을 심화하거나 진로를 바꾸려는 청년에게 '두 번째 전공' 역할을 한다.

(관련사례) 경영학과 졸업 후 항공사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서상원(38·남) 씨는 경력 전환을 위해 대전캠퍼스 하이테크과정(클라우드보안과)에 입학해 재학 중 정보보안기사 등 7개 자격을 취득했다. 주야간 학업에 매진한 그는 비전공자의 한계를 넘어 정보보안 기업에 입사했다.

▶ **'중장년특화과정' - 만 40세 이상, 기술로 인생 2막** 열고 싶다면

중장년특화과정(장기)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진로 전환을 돕는 4개월 과정이다. **1,500명을 모집**하며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선발해 퇴직·이직 시기에 맞춰 지원**할 수 있다.

(관련사례) 24년간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한 신용식(42·남) 씨는 포항캠퍼스 중장년특화과정(전기과)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군에서 쌓은 시설관리 경험에 전기 기술을 더해 지난달 경북문화관광공사 전기직에 재취업했다.

교육 성과도 뚜렷하다. 전문기술과 하이테크과정은 2026년 2월 수료자 기준 **취업률은 74.4%**, 취업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비율인 **유지취업률 89.1%**를 기록했다. 중장년특화과정도 **64.8%**에 이른다.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관련 이미지
2.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담당 부서	직업교육국 학사운영부	책임자	부 장	김정섭 (032-650-6660)
		담당자	과 장	진소희 (032-650-667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관련 이미지**



▲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과정 인포그래픽

붙임2 **관련 사진**



▲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특화과정을 통해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취업한 신용식 (42·남/사진 왼쪽)씨가 교육생 당시 시퀀스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중장년특화과정에서 시퀀스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